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8 ~ 2/3

*불서출판 운전자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스님	불광출판사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7	물입이 시작이다	스님	불광출판사
3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8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말야	담앤북스	담앤북스
4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9	연기와 우주인드라마	이시우	종이거울
5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10	우리말 선문철요집	천봉약산	통사취문선원



연등회가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13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고유문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연등축제.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13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 고유문화로, 부처님 같이 마음과 세상을 밝히기를 기원하며 등을 밝히는 축제이다. 연등행렬을 비롯해 연등 전시, 민속 행사, 공연,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직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펼쳐지며, 연등행렬, 회향한마당, 전통문화마당 같은 주요 행사는 주말에 치러진다.

이 책은 연등회의 모든 것을, 아름다운 화보와 함께 담았다. 연등회 프로그램에 대한 길라잡이서 연등 제작법, 연등회의 역사와 의미 등에 이르기까지 연등회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하는 '연등회 백과사전'이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움직이는 등' 축제

부처님오신날 즈음이면 전국은 빛의 예술로 빠져든다. 특히 서울은 동대문서 조각사거리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빛의 물결, 이것이 바로 연등회, 빛의 축제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등을 밝히며 이어져 온 세월이 무려 1,300년, 정말 아름다운 기적이다.

연등회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수많은 축제 가운데 관람객이 가장 많으며, 축제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수도 가장 많다. 2014년 연등회보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30만여 명, 외국인 2만여 명이 연등회를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등(燃燈)의 뜻과 유래

'연등회'라고 하면 간혹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을 본 떠 만든 등을 들고 행렬하는 것으로 오



천년을 이어온 빛 연등회
연등회보존회 엮음
불광 펴냄
1만 7천원

해하지만, 등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등(燃燈)이라고 한다. 4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연등회는 인간은 누구나 노력에 의해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성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자, 누구라도 정진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돌아보는 날이다.

종교 의식 속에 스며 있는 한국 전통문화

오랜 역사를 지닌 연등회는 지난 2012년 4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등재되었다. "동일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과 단절 및 변화를 거쳐 일반인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라는 점이 문화재로 지정된 이유다. 연등회는 불교적 전통에서 시작되었으나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일상 깊숙이 뿌리를 내리며 이어져 왔다.

연등회의 5가지 코드...세계적 축제 원동력

▲**빛**=연등회는 단순히 전통적인 불거리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빛'이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축제의 중심이다. 한마디로 빛의 축제다. 부처님오신날 전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거리에 켜둔 '거리 연등'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외국인들뿐 아니라 내국인들도 평소 익숙했던 거리의 변화를 놀라워하고 좋아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흥**=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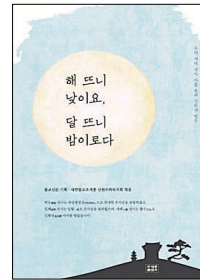
연등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하는 에너지와 흥, 열기에 놀란다.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고, 움직임을 다 역동적인 힘이 느껴진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과 화려한 불빛, 행렬단의 환한 표정과 힘찬 발걸음..... 이러한 역동적인 에너지는 관람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회향한마당에서 바로 옆의 낯선 사람과 노래를 부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강강술래를 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즐긴다.

▲**정성**=불교경전에서는 가난한 여인이 구걸해서 얻은 동전 몇 닢으로 정성껏 밝힌 등불이 왕이 화려하게 밝혀놓은 등불보다 밤새도록 환하게 빛났다는 반자일등(貧者一燈)의 일화가 전해진다. 등을 밝히는 일은 '정성스러움'이 최고임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연등회에 등장하는 장엄등과 행렬등도 정성으로 만들어진다. 연등행렬 참가자들이 모두 일일이 손으로 만든다. 네댓 사람이 이끄는 장엄등의 제작 기간은 단체별로 6개월 이상이다.

▲**공동체성**=전통사회의 이상향은 대동사회였다.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함을 이루며 서로 책임지며 배려하는 사회가 대동사회다. 인류가 꿈꾸는 차별 없는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즐긴 것이 대동놀이이다. 더불어 함께 일하고, 만들고, 즐기고, 맺힌 것을 풀어가며 통섭하는 과정이 대동놀이였으며 그것이 오늘날 축제의 원형이다.

▲**자발성**=연등회는 오롯이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운영되며 그 수가 천여 명에 이른다. 등을 만들고 문화체험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다.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자부심과 사람들에게 연등회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긍지가 이들의 유일한 보상이다. 김주일 기자

아홉 선지식 통해 듣는 야단법석 간화선 법문



해뜨니 낮이요, 달뜨니 밤이로다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엮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8천원

조계종 수행법의 '최상승법' 또는 '지름길 수행문(徑截門)'이라고 하는 간화선은 화두를 참선하는 선 수행이다. 본래의 성품자리를 바로 보고 단박에 여래의 경지에 들어가 온갖 말의 향연이 끊어지고, 마음속의 갖가지 번뇌가 끊어진(言語道斷, 心行處滅) 자리에 화두라는 의식 덩어리 하나에 집중할 때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 오직 화두에 대한 의식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하기 때문에 온갖 주의주장과 사뉘 이론들이 난무하는 현대사회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통해 마음이 곧 부처이고(卽心是佛), 평상심이 곧 도(卽平常心是道)인 평온한 세상을 열 수 있다. 그렇기에 간화선이 21세기 문명을 이끌 대안 사상이라는 점에 의의가 없을 것이다.

이는 각 개인의 생활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참선 수행은 완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 즉 본래의 마음자리인 '참 나'로 돌아가는 길을 깨닫게 하여 자신 안의 극락을 찾아서 영원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수행할 수 있기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욱 적합한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과 전국선원수좌복지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전국선원수좌복지회가 주관한 '간화선 대법회'가 열렸다. 9일간 이어진 법석에서 진제 법원 중정예하를 비롯해 석종사 금봉선원장 금야 해곡 대선사, 용화사 회주이자 원로의원인 미륵 월탄 대종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이며 원로의원인 학산 대원 대종

사, 축서사 문수선원장인 금곡 무여 대선사, 덕숭총림 방장인 송원 설경 대종사, 지리산 상무주암 수좌인 두암 현기 대선사, 죽림정사 조실이며 원로의원인 불심 도문 대종사, 그리고 문수산 금봉암주이며 역시 원로의원인 은암 고우 대종사 등 우리 시대 선지식 아홉 분 스님들께서 간화선을 통해 생의 의문을 해결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다.

이 책에 수록된 법문들은 간화선 대법회서 설법한 법문들을 모아 엮은 간화선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다. 스님들께서는 설법을 통해 간화선의 역사를 비롯해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과 함께 수행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고 올바른 수행 방법을 일러 준다.

스님들은 한결같이 '참 나', 바로 '주인공의 진면목을 보라'고 말한다. 그 진면목은 돈이나 권력,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간화선을 통해 하나의 화두를 간절히 참구해 생각의 한계가 끊어질 때 문득 선사문화에 벗어나 진실한 본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예로 스님 자신의 수행 경험도 함께 들려주면서 설법 내용에 대해 더 쉽고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간화선 수행을 통해 얻는 깨달음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내서 수행했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흔히들 어렵다, 잘되지 않는다고 하며 끈다려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홉 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실천에 옮긴다면 생의 의문을 해결하고 진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어렵지 않게 본래 진면목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책속의 밑줄 긋기

"어디에도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명예도, 부귀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완전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완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참나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참 나 누구인가? 보고 듣는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이 의문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의 본질과 근원을 찾아서 바로 그놈만 깨달으면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 저한강 다리 밑을 헤매며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 해도 참 자기를 깨달으면 웃으면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자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 건강이 아무리 풍족하게 주어진다 해도 늘 허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화선에서는 닦는 것이 본래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부득불 닦아주어서 그 문제는 네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간화선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무기로 말하자면 핵폭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기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핵폭탄, 그래서 한 번 터지면 싹 다 끝나 버립니다. 이처럼 간화선에는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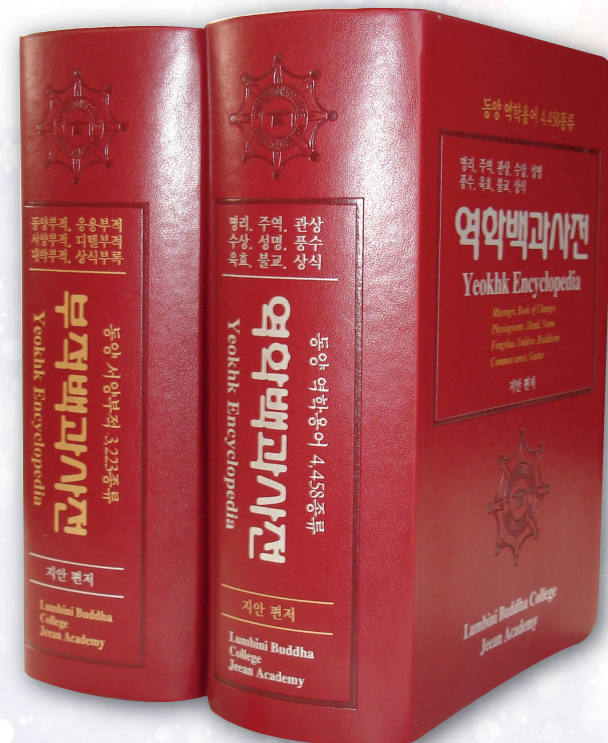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부적백과사전

-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 • 안전제해예방부 • 삼재소멸부 • 복약효력부
- 제2편-만사형통부 • 만사형통남사주부 • 개운팔진양둔팔부 • 친신통령부
- 제3편-물고기자리부 • 영문형 희관야 • 서양주술행복양부 • 서양주술화합결합부
- 제4편-사랑부적 • 재물금전부 • 학업진학부적 • 고사개업부적 • 자식임신부적
- 제5편-대박추첨일부적 • 희관야성취12지부 • 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미국역학사 자격증 과 신인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역학용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흉일(嫁娶大凶日) • 가취월(嫁娶月) • 갑경충(甲庚沖) • 나경(羅經) • 오행(五行) 박환(剝換) • 마장격(魔障格) • 단명상(短命相) • 사자자리Lee • 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 • 흉궁(胸宮)



특혜 **보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아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